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63호 【루계 제24476호】 주체103(2014)년 3월 4일 (화요일)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는 당사상사업에서의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로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연설을 받아안은 대회참가자들의 격정과 환희, 감격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당사상일군들이 영원히 심장깊이 간직하여야 할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데 이어 사상공세의 출발진지를 차지하는 일군들에게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에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선전일군들이 지닌 사명과 임무가 뚜렷이 새겨져있으며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담당자들이 차지하고 수행하여야 할 지위와 역할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모든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나팔수와 같이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힘,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나가야 한다.

1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은 오늘 위대한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번영의 년대기를 아로새기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사상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온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우리 당선전일군들이 백두산대국의 사상중시, 사상사업선행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사상전의 집중포화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백배천배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자!》**는 구호를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면 그것은 당에 큰 힘으로 됩니다.》

항일유격대나팔수는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앞장에서 견결히 옹위하는 불굴의 전위투사, 드세찬 사상공세로 원쑤들에게 철추를 내리며 용사들을 결사전에로 불러일으키는 공격형의 기수, 천만대중의 심장에 혁명의 불, 투쟁의 불을 달아주는 열혈의 혁명가이다.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정치일군, 선전일군들처럼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워나가며 사상의 위력으로 천만대오를 이끌어나가는 기관차, 척후병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당선전일군들모두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될 때 원쑤들은 그 한사람한사람을 한개 사단이나 군단무력보다 더 무서워하게 될것이며 우리 혁명은 보다 큰 활력에 넘쳐 승승장구하게 될것이다.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자!》, 이 구호에는 오늘의 혁명적사상공세에서 우리 당선전일군들이 차지하여야 할 위치가 명백히 밝혀져있다.

오늘 우리 당선전일군들의 어깨우에는 중대한 력사적사명이 놓여있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수령의 제일동지, 제일전우가 되여야 할 사람들이 당선전일군들이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누구보다 가장 민감하게, 가장 정확히 받아들이고 당의 목소리를 즉시에 하부말단까지 전달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끝까지 벌려나가기 위해서는 항일유격대나팔수처럼 살며 투쟁해야 한다.

항일유격대의 나팔수들은 언제나 혁명의 사령부와 운명을 같이하며 사령관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전 대오에 신속정확히 전달해준 제일근위병들이였다. 그들은 사령관동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령옹위의 예리한 눈초리로 적들의 준동을 살피며 사령부의 작전적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전위기수가 되고 육탄용사가 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순간도 비울수 없는 전투좌지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초선이였고 수령의 사상과 로선은 목숨으로 지키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할 지상의 명령이였다.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받드는 맨 앞장에 자기 위치를 확고히 정하고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선전자, 관철자로 삶을 빛내여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나아가는 21세기의 항일유격대나팔수들이 원수님의 두리에 성새, 방패를 이루면 사상생활을 게을리하는 그 어떤 《특수》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허물어보려는 그 어떤 사상적변질체도 배겨내지 못한다.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제일선, 바로 이것이 당선전일군들의 영원한 참호이다.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자!》, 이 구호에는 우리 당선전일군들이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한 요구가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사상진지는 언제나 방어형이 아니라 공격형으로 편성되여야 한다. 진공적으로, 화선식으로, 전격적으로, 바로 여기에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사상사업의 본태가 있고 주체의 사상론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항일유격대나팔수는 전 대오에 멸적의 기상과 백절불굴의 정신이 차넘치게 한 공격형의 선봉투사였다. 항일유격대의 나팔소리가 울리는 곳에서 원쑤들은 공포에 떨고 비명을 질렀으며 인민들은 백두산을 바라보며 조국해방의 그날을 그려보았다. 항일유격대의 나팔소리야말로 전투원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주고 대오를 원쑤격멸의 육박전에로 불러일으키는 총공격의 우렁찬 뢰성이였고 혁명의 붉은기높이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떠미는 힘있는 원동력이였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공격형의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온 사회를 로동당의 붉은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상교양사업도 진공적으로 벌리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도 화선식으로 진행하며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을 쓸어버리는 투쟁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 백두의 공격정신을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일관한 투쟁방식이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오늘의 총진군은 항일유격대의 진격의 나팔수와 같은 당선전일군들을 부르고있다. 패배주의를 불사르고 사소한 답보와 침체도 없이 완강하게 돌진하는 투사, 기적이 일어나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사상의 무기를 메고 목적의식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함께 방도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실천가, 헌신적인 창조자가 우리 당이 요구하는 참된 선전일군이다. 모든 당선전일군들이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댈 때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비약적혁신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될것이다.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자!》, 이 구호에는 우리 당선전일군들이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며 대오를 활력있게 이끌어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가 새겨져있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선전일군들이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집단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기둥, 대중적혁신운동의 힘있는 척후병이 될것을 바라고있다. 당선전일군들이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야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지키기 위한 사회주의수호전에서도,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자력갱생의 대진군에서도 커다란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선전일군들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

항일유격대나팔수들이 울리는 대중계몽, 군중공작의 목소리는 언제나 끊기지 않는 투쟁의 메아리였고 훌륭한 결실을 맺는 혁명의 나팔소리였다. 그들은 산판이나 농촌, 바다가나 공사장 등 군중이 있는 곳이라면 위험도 무릅쓰고 찾아갔으며 대중과 혈연적뉴대를 맺고 민심을 주도해나갔다. 항일유격대선전일군, 정치공작원들의 발자욱이 찍힌 고장들은 혁명열로 끓어넘치고 전민항쟁의 보루로 되였다.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묶어세우고 불러일으키며 광범한 군중을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운 항일유격대나팔수들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는 혁명가, 대중의 신망이 높은 열정가, 락천가들이였다.

시련이 겹쌓이고 투쟁과업이 방대할수록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들처럼 대중을 각성시키고 불러일으켜야 한다. 당선전일군들의 마음속에는 늘 군중이 있어야 하고 일군들의 생활은 언제나 대중속에서 흘러야 한다. 막장에서 광부들과 함께 착암기도 다루고 논밭에서 농장원들과 거름도 같이 내면서 당정책도 해설해주고 쉴참에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일터에 활력을 부어주는 당선전일군이 오늘의 항일유격대나팔수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이 항일유격대나팔수처럼 대오의 전투사기를 높여주고 대중의 정신력을 앙양시켜나갈 때 점령 못할 요새, 뚫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군중과 일심동체를 이룬 당선전일군들의 사상전, 선전선동의 포성에 의하여 백두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 소왕청과 처창즈의 결사항전의 정신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전구마다에서 힘있게 분출되고 선전일군들이 틀어쥔 사상공세의 붓대에 의하여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이 우리 내부에 쉬를 쓸지 못하게 된다.

오늘의 사상전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을 구현하여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이다. 이 장엄한 투쟁에서 승리의 열쇠는 당선전일군들이 쥐고있다. 당의 붉은 정수분자들인 우리의 모든 당선전일군들이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여 억세게 투쟁해나갈 때 선군조선의 정치사상진지는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게 될것이다.

2

항일유격대나팔수, 이것은 백전백승으로 빛나는 우리 당력사의 갈피마다에 새겨져있는 참된 당선전일군들의 모습이고 대명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전 로정은 사실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력사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혁명에는 반드시 나팔수가 있어야 하며 진격의 대오앞에는 나팔소리가 힘차게 울려야 한다. 나팔수가 없는 혁명대오는 바람따라 돛을 다는 쪽배와 같고 나팔소리가 울리지 않는 혁명은 활력을 잃은 생명체와 다를바 없다.

선전일군들을 진격의 나팔수로 내세워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것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혁명발전의 전 력사적과정에 구현되여온 우리 당사상사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의 개척기에 선전선동의 귀중한 경험과 본보기를 창조하신것은 우리 당사상사업의 근본초석을 마련한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항일의 선전일군들이 언제나 혁명의 나팔수가 되여 대중을 교양하고 불러일으키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언제나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의 숭고한 귀감을 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실천적모범은 항일유격대선전일군들이 대중의 심금을 틀어잡는 전투적인 선전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한 원천이였다.

항일유격대나팔소리는 그대로 우리 혁명의 승전고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대오의 앞장에서 쟁쟁히 울리는 나팔소리를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로, 돌격구령으로 새겨들으며 원쑤격멸의 의지를 가다듬었고 인민들은 유격대의 나팔소리를 전민항쟁의 호소로 받아안으며 너도나도 반일전에 떨쳐나섰다. 항일유격대나팔소리가 조국해방의 만세소리로 이어졌고 새 조국건설의 힘찬 진군과 더불어 이 땅우에 끝없이 울려퍼졌다.

항일의 나날에 창조된 선전선동의 전통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혁명의 년대기마다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신것은 우리 당선전일군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온 획기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당선전일군들을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어리여있는 삼지연대기념비의 진격의 나팔수는 우리 당선전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의 거울이였고 투쟁의 기치였다.

1970년대가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로 조국청사에 찬연히 수놓아질수 있게 된것은 항일유격대나팔소리, 혁명의 북소리가 온 나라를 진감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선군혁명의 년대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당선전일군들의 전투적역할이 남김없이 발휘된 불멸의 영웅서사시가 아로새겨져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제 집격정보다 사상사업에 더 큰 심혈을 기울이고 쌀배낭이 아니라 책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간 견결한 투사들이 바로 우리 당선전일군들이였다. 순간의 멈춤도 없이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사상정신적량식을 끊임없이 심어준 당선전일군들이 있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본태가 굳건히 고수되고 온 나라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더욱 힘차게 울려퍼질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의 나팔소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백두산대국의 불패의 상징으로,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진군가로 더욱 세차게 울리고있다.

우리 당사상사업은 철저히 항일유격대식으로 일관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혁명전적지와 마두산혁명전적지 등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쉬임없이 찾으시여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키도록 하시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항일유격대식, 화선식선전선동방법을 적극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우리 당의 세련된 사상중시령도에 의하여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은 항일유격대나팔소리의 견인력과 더불어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오늘의 총진군은 사상전, 선전선동의 위력으로 승리떨치는 혁명적대진군이다. 당선전일군들이 항일유격대나팔수들의 선도자적역할을 대를 이어 꿋꿋이 이어나가는데 총진군대오의 약동하는 기상이 있고 강성국가건설투쟁에서의 대비약적혁신이 있다.

오늘의 항일유격대나팔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론을 신념화, 체질화한 선전일군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사상을 가장 위력한 혁명의 무기로 틀어쥐고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닭알로 바위치기라고 하지만 닭알에도 사상을 넣으면 바위를 깨뜨릴수 있다는것이 오늘 우리 당이 주장하는 사상제일주의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우리 당의 립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사상을 중시하는 조선로동당의 선전일군들은 마땅히 주체의 사상론의 견결한 옹호자, 관철자가 되여야 한다. 대중의 사상정신력을 발동시키면 무에서도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 관점, 애로와 난관이 겹쌓일수록 사상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는 신조,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의 발전을 그 어떤 성과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립장, 여기에 당선전일군이 지녀야 할 배짱이 있고 참모습이 있다. 열백번 쓰러져도 사상론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는 사람, 목숨은 버려도 사상사업선행의 원칙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선전일군이다.

지금 우리는 제국주의반동세력과의 치렬한 대결전을 벌리고있다. 지난 시기 우리를 물리적으로 압살하려고 발광하던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오늘 우리를 사상적으로 변질와해시키기 위한 반동적사상공세에 그 어느때보다 열을 올리고있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이 사상을 생명선으로,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상전의 포성을 힘있게 울려나갈 때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위력은 더욱 높이 과시되게 될것이다.

오늘의 항일유격대나팔수는 경애하는 원수님식 사상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실천에 구현해나가는 선전일군들이다.

우리 당이 창조하고 거창한 혁명실천투쟁속에서 그 우월성이 뚜렷이 검증된 주체적인 사상사업방법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경지에서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방식은 우리의 사상, 우리의 리념과 배치되는 온갖 잡사상을 단호히 배격하며 민심에 철저히 발붙이고 천만대중의 심장이 혁명열, 애국열로 끓어번지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방식이며 도식과 경직을 깨고 모든 사상사업을 살아움직이는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방식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사업방법의 위력은 온 나라에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가 나래치고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진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현실에서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이 항일유격대나팔수와 같이 시대를 선도하고 대중을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근본방도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사업방법의 완벽한 체현자, 능숙한 실천가가 되는데 있다.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고 군중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고락을 같이하며 선동이나 강연을 한번 하여도 대중의 심금을 울리게 하는 일군, 매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만가지 처방을 가지고 사업하는 일군, 깊은 사색과 불타는 열정으로 실효성있는 선전선동방법을 부단히 탐구하고 적극 활용해나가는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사업방법을 실천에 구현해나가는 당선전일군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 위대한 스승의 손길아래 자라난 수천수만의 사상일군들이 있으며 풍부하고 우월한 당사상사업방법이 있다. 모든 선전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진심으로 따르고 기다리는 사상적선도자가 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일먼저 찾는 친근한 동지가 될 때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위훈이 창조될것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마다 진격의 나팔소리를 높이 울려 시대와 혁명을 힘있게 떠밀어온 전세대 사상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려는것은 우리 세대 당선전일군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이런 당선전일군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이고 힘이다.

3

오늘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연설에서 사상사업의 생명수를 받아안고 사상공세의 출발진지를 차지하였다.

조국보위초소와 공장과 농촌 그 어디에나 힘있는 선전선동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나가는 사상일군들이 앞장에 서있다.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높이 울려퍼지고 천만군민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자랑찬 모습이다. 지금이야말로 항일전의 나날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총돌격의 나팔소리높이 조국해방성전에 과감히 떨쳐나서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가 온 강산을 진감시키던 1970년대와 같은 격동의 시기이다. 우리는 위대한 백두령장의 령도밑에 타오른 사상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은 대회장을 나서는 길로 병사대중과 인민들속에 들어가 당중앙의 의도를 알려주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사상공세의 출발진지를 차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당선전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뜻을 같이해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당과 함께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된다. 오늘의 사상공세의 목적은 천만군민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준비시키자는데 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제시하신 구호이며 항일혁명투사들의 드팀없는 신조였다. 이 구호를 높이 들고 항일의 밀영들에서 군정학습이 진행되였고 그 나날에 우리 당의 전통적인 문답식학습방법이 창조되였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학습기풍을 따라배워 자신부터가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모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은 유일사상교양의 훌륭한 교재이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집대성되여있는 대백과전서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총서인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당의 혁명전통과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연설을 자자구구 학습하여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당이 학습하고 전민이 학습하고 전군이 학습하는 열의가 온 나라에 차넘칠 때 우리 혁명대오는 오직 하나의 사상만이 꽉 들어찬 사상적순결체로 더욱 강화될것이다.

전당의 선전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 능숙한 정치활동가가 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선전일군들의 배낭에는 사령관동지의 사상과 의도가 담겨진 출판선전물들도 있었고 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고 원쑤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 사상적폭탄도 있었다. 항일유격대식배낭은 비록 세월의 흐름과 함께 눈비에 색이 바래고 보풀은 일수 있어도 견인력과 생활력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혁명의 귀중한 재보이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이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라는것은 백두의 풀물이 오른 배낭의 무게를 0.001g도 절대로 가볍게 하지 말고 더욱 무겁게 메고 끊임없이 군중속에 들어가라는것이다.

모든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이 알고싶어하는것, 듣고싶어하는것을 항일유격대식배낭에 넣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 배낭을 펼치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작들과 당문헌, 현대과학기술지식과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다 나와야 한다. 당선전일군들은 민심을 잘 알고 대중의 심리를 깊이 파악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사상정신적량식을 주면서 대중을 기적과 혁신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사상전선을 지켜선 일군들은 우리의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을 널리 선전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취약성과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발가놓는 단수높은 대적언론전, 전파전으로 적들의 기를 꺾어놓아야 한다. 적들이 끈질기게 들이미는 자본주의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2중 3중으로 든든히 치고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맨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견결한 투사가 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의 선전일군들은 능란한 정치활동가였을뿐아니라 싸움마당에서는 돌격의 제일선에 섰던 용사들이였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들이 발휘한 실천적모범은 전 대오를 원쑤격멸에로 불러일으킨 전투적호소였고 진격의 나팔소리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투쟁은 령도자의 사상을 옹위하고 령도자의 구상을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놓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남보다 두몫, 세몫씩 일하며 뒤떨어진 사람을 이끌어주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실력가형의 사상일군이 우리 당이 바라는 항일유격대나팔수이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창조된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은 우리 조국의 영원한 전진방식, 투쟁방식이며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나팔소리는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념과 무한대한 힘을 안겨주는 원동력이다.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자!》, 우리는 이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다.

최후승리를 굳건히 담보하는 위대한 혁명전통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령도사를 교과서로 삼고 일해나간다면 막힐것도 모를것도 없을것이며 우리 당사상사업이 그대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밀불이 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은 날이 갈수록 우리 천만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다.

그렇다.

오늘에 존재하는 모든것은 어제와 잇닿아있다.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영광넘친 과거와 투쟁으로 장엄한 오늘, 광명한 미래를 하나로 이어주는 피줄기인 혁명전통,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전과정에 무궁무진한 생기와 활력을 주는 가장 고귀한 재보인 혁명의 명맥,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승리하며 완성되여나가는 과정은 곧 혁명전통이 마련되고 계승발전되여나가는 력사적행로이다.

한것은 인민들이 어떤 혁명정신을 지니고 어떤 투쟁기풍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이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것이다.

위대한 혁명전통은 인민들을 영웅적인 투쟁과 위훈에로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힘의 원천이다.

주체의 사상체계와 혁명정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심오하고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혁명의 만년재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는 당사업으로부터 강성국가건설, 사람들의 혁명적수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과 활동을 명실공히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구현해나가는 투쟁과정으로 일관시켜나가는 위대한 계승의 정치이다.

* *

위대한 력사가 있어 위대한 계승이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은 수령의 위업의 계승이며 수령의 사상과 업적의 계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 고매한 혁명적풍모의 계승이다.

우리의 사상사업은 철두철미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며 쌓으신 위대한 사상정신적재보를 발전풍부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일관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사실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력사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혁명의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의 귀중한 만년재보이며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고귀한 초석인 혁명전통,

혁명전통에 대한 태도는 혁명에 대한 태도문제이며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사이다.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이 다져지기 시작하던 때로부터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대백과전서인 항일의 혁명전통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눈부신 빛을 뿌리며 선군혁명위업수행에 거대한 활력을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정을 제일생명으로, 삶의 좌우명으로 내세우시고 그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장군님께서 혁명전통계승의 경이적인 현실을 안아오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이끄시면서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신것은 당사상사업령도에서 정수를 이룬다.

혁명의 시원이 열리던 장엄한 력사적시기에 마련된 혁명전통의 순결한 계승,

이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어버이장군님께서 1960년대에 하신 간곡한 당부를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게 된다.

혁명전통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존엄있는 사회주의조국으로 세계에 빛을 뿌리는것이라고,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조국의 혁명정신이라고, 새 세대들이 조국을 영원히 빛내여나가게 하려면 그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부터 심어주어야 한다고, 실로 백두의 혁명정신은 혁명의 선배들이 새 세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재부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고 값진 재부라고 말할수 있다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조국의 통일도 이룩할수 있고 후손만대의 번영도 이룩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우리 조국의 자랑인 혁명전통을 노래하는 우리 천만의 가슴에 1970년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울린 백두산장군의 신념의 선언이 뜨겁게 메아리친다.

날씨가 좀 풀릴 때 오르시였으면 좋겠다는 일군들에게 어버이장군님께서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가보아야 진짜 백두산을 보았다고 말할수 있고 백두의 기상을 알수 있으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오르신 백두산이였다.

백두련봉을 굽어보시며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선의 언덕을 수없이 맞받아 헤쳐나가시며 위대한 혁명정신을 창조하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시였다.

숭엄한 격정에 휩싸여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은 만난을 맞받아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라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간직하면 총탄이 비발치는 격전장도 웃으며 달릴수 있고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혁명의 노래를 부를수 있다고, 이것은 지나온 조선혁명의 력사가 증명한 불패의 진리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에서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자! 이것이 자신께서 오늘 백두산에 올라 더욱 굳게 다지게 되는 신념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백두의 혁명정신을 가장 순결하게, 가장 완벽하게 계승하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울린 장중한 메아리였다.

우리 잠시 2000년대의 첫 기슭을 돌이켜보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새 세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길은 오직 경제적힘을 키우는것이라고 하면서 시장쟁탈전, 자원쟁탈전의 주로를 따라 미친듯이 경주할 때 우리 조국에서 과연 어떤 신념의 목소리가 세계를 진감하였던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충격적인 현지지도보도가 세계의 모든 눈과 귀를 끌었다.

거저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풍찬로숙하시면서 적들과의 치렬한 전투를 벌리시고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시며 간고한 행군길을 걸어가시느라 얼마나 힘드시였겠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우리 수령님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전설적영웅, 희세의 위인이시였다,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깊이 간직되여있을것이며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항일의 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피와 땀으로 만고의 항쟁사를 창조하였으며 그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속에 그대로 맥박치고있다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말씀이 천만의 심장을 쿵쿵 높뛰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만단사연을 잊지 못해 낮이나 밤이나 끝없이 설레이는 백두밀림에서 력사의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이며 만년초석이라고,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결심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혁명전통을 계승해나가는것을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가장 중대한 문제로, 당자체의 존재와 강화발전을 위한 사활적인 문제로 내세우시는 우리 장군님의 투철한 신념의 발현이였다.

혁명전통을 계승하는 목적은 그것을 한갖 유산이나 력사적자료로 남게 하자는것이 아니라 혁명적재보를 밑천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는데 있다.

혁명전통의 계승에서 진수를 이루는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인 수령의 탁월한 사상의 계승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날로 빛을 뿌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발휘하도록 하신것은 사상사업을 령도하시면서 어버이장군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공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무한한 충정, 이는 어버이장군님께 있어서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인 동시에 귀착점이였으며 모든 사업의 목적인 동시에 방도이기도 하였다.

그 성스러운 행로에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기본방도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데서 찾으신 어버이장군님이시다.

당도 수령의 사상에 충실한 전위대오로, 군대도 수령의 사상에 충실한 충정의 군집단으로 만들며 국가도 수령의 사상에 충실한 나라로 만들려는것, 바로 이것이 어버이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혁명투쟁의 기치였다.

이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혁명이란 수령의 사상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이라는 유명한 명언을 내놓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처럼 엄혹한 시련의 나날 사나운 눈보라길을 헤치시여 찾으신 자강땅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내놓으신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확증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대규모발전소와 함께 물이 흐르는 도처에 중소규모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인 과업이다.

공업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식으로 민족만대의 번영을 안아오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강렬히 맥박치는 강령적과업인가.

력사의 그 길에서 당 제5차대회의 사상을 다시금 경건히 되새겨보시며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문제는 수령님께서 벌써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인 과업이라고,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온 나라의 전기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벅적 떠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위대한 재보는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령도업적이다.

가장 현명하고 과학적인 령도풍모를 지니신것으로 하여 령도예술의 거장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신 우리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혁명과 건설의 그 어느 한 분야에도 미치지 않는데가 없다고, 우리 인민이 정치와 경제,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수령님께서 탁월한 령도예술과 령도적수완으로 모든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기때문이라고,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문무를 겸비하시고 다재다능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라고 절대적인 흠모심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모든 업적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신 어버이장군님이시다.

걸출한 혁명가로서, 위대한 인간으로서 우리 수령님의 눈물겨운 한평생의 갈피갈피를 길이 전하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세상에는 위인들이 남긴 회상록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의 회고록과 같이 그처럼 위대한 혁명의 진리를 가슴뜨겁게 새겨주는 대백과전서적인 회고록은 없다.

우리 천만군민은 혁명의 귀중한 재보로 되는 이 책을 한장두장 번지며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 이 세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혁명의 초행길을 인민과 함께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를 가슴뜨겁게 더듬어보며 그 길에서 전인미답의 성공탑을 쌓으신 수령님의 불멸의 력사를 새겨안는것과 함께 혁명가로서의 신념과 투지를 엄숙히 가다듬는다.

우리 혁명의 만년국보로 되는 불멸의 전서를 더없는 국보로 여기시고 세월의 흐름속에 더욱 빛을 뿌리도록 해주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다.

혁명의 지휘부를 최전방에 두시고 매일같이 전선길을 걸으시는 그처럼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도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령님의 회고록을 더 많이 출판하여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의 가슴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깊이깊이 새겨주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어려울 때면 힘과 용기를 얻게 하고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의례히 항일의 나날들을 돌이켜보게 하는 혁명의 교과서인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고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풀어나가신 우리 수령님의 인민적령도를 집대성한 도서 《인민들속에서》,

이 귀중한 도서들이 온 나라 천만군민의 삶과 투쟁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상정신적량식으로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데도 어버이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뜨겁게 깃들어있지 않던가.

민족의 위대성과 불패성은 혁명적인 정신과 강의한 기개에서 파시된다.

성스러운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혁명전통교양을 당사상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혁명전통을 우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떠밀어주는 불패의 무기로 위력떨치게 하신것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쌓으신 업적중의 특출한 업적이다.

항일의 나날에 창조된 모든 재보들은 혁명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법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계승하시여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우리 혁명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탁월한 령도력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도 뚫고 우리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키시며 대해같은 포옹력으로 천만군민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혁명은 승승장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일념만이 차넘치고있다. 세상천지가 열백번 바뀐다 하여도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나가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는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핵이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고있는 사상정신적핵이 어떤것인가에 따라 진짜혁명가와 가짜혁명가, 충신과 배신이 갈라지게 된다. 혁명가의 진가는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핵이 얼마나 숭고하고 공고한가 하는데 있다.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핵은 견결한 수뇌부옹위정신이다. 단두대우에서 수령만세를 높이 부르는 고결한 혁명절개도,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지켜싸우는 투쟁정신도 혁명적 수령관을 초석으로 하여 발휘되는것이다. 때문에 참다운 혁명가들은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바쳐진 삶을 가장 고귀한것으로 여기면서 매 순간순간을 수령결사옹위로 수놓아가는것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고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굳건히 보위한 새 세대 보안원,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보위한 유명무명의 전사들을 비롯하여 우리 혁명대오에서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다. 순간을 살아도 자기 령도자를 위하여 살고 한생을 바쳐도 령도자의 안녕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하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는 최대의 애국애민이다.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며 모든 행복의 상징이다. 수령이 위대하면 작은 나라도 위대한 시대사상의 조국으로, 약소민족도 강대한 인민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릴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수령을 옹위하는것은 나라를 보위하는것으로 되며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것으로 된다.

우리 혁명에서 배출되고있는 애국애민의 투사들은 례외없이 수령결사옹위의 제일선에 선 혁명가들이다. 이들속에는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는 군인들도 있고 그처럼 간고한 시련속에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워 당의 로선과 정책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건설자들도 있으며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 맡은 초소를 굳건히 지켜가는 선군시대의 공로자들도 있다. 초소와 직무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신념은 오직 하나 령도자의 안녕과 권위를 보위하여야 조국이 번영하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앞당겨진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곧 수령사수전, 수령옹위전으로 되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을 지켜선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도 풍요한 작황을 기어이 마련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불타는 소원이 간직되여있고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도 많은 물고기를 잡아 인민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할 충정의 맹세가 고동치고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만을 바라며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꽃피워나가는 우리 조국이야말로 수령결사옹위의 성새, 방패를 이룬 철벽의 나라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에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핵이 있고 최대의 애국애민이 있다는 명언의 참뜻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량 순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는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핵이고 최대의 애국애민이다.》

평범한 교육일군에게 찬성투표하여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대성구역 6월9일통북고급중학교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절세위인의 고결한 풍모

뜻깊은 당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과 혁명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우리 인민은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행복과 긍지에 넘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는 존칭사를 마음속으로 부르고있었다.

주체61(1972)년 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자신에 대한 존칭사를 쓰는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다시한번 명백히 말해준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한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이것은 우리 인민이 수십년세월 혁명투쟁을 해오는 과정에 찾은 고귀한 진리이며 그것은 천만의 심장마다에 굳게 새겨진 신념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자신께서는 동지들과 인민들의 마음에 일을 더 많이 하는것으로 보답하려고 한다시며 오늘 동무를 부른것은 우리모두는 한사람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라는것을 똑똑히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 이보다 더 값높은 칭호는 이 세상에 없으며 자신께서는 지도자라는 호칭보다 다같은 혁명전사라는 뜻에서 그저 이름뒤에 동무, 동지라고 불러주면 그이상 고마울데가 없겠다고 당부하시고 일군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순간 일군의 마음속에서는 그이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성인이시라는 신념의 웨침이 저도모르게 흘러나왔다.

주체76(1987)년 2월의 명절을 앞둔 어느날이였다. 온 나라 인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45돐을 크게 기념하도록 승인해주실것을 그이께 말씀드리는 한 일군이 있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청원을 한마디로 거절할수가 없으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일군을 바라보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낮으나 웅심깊은 음성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민들과 동지들의 마음은 잘 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전사이며 전사의 생일이 무슨 명절인가고, 우리는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의 명절만을 민족적대경사의 날로 크게 쇠야 하며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4월의 명절을 즐겁게 쇠는것을 볼 때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영광을 인민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 오래지 않아 수령님의 탄생 75돐이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 한번 4월의 명절을 본때있게 경축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 인민의 간절한 소망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일군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은 정말 좋은 인민이라고, 그렇기때문에 자신께서는 우리 인민을 숭배하고있으며 생일을 맞을때마다 인민들을 위해서는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좌우명을 깊이 새겨보군 한다고,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 인민에게 영광을 드리고 싶은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모든 영광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시는 그이의 높으신 뜻앞에 일군은 더 다른 말씀을 올릴수가 없었다.

결국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45돐은 인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런 행사도 없이 조용히 흘러갔다.

본사기자 한영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벌가리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쏘피아

벌가리아공화국 대통령

로쎈 쁠레브넬리예브각하

나는 벌가리아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의 발전과 번영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3월 3일 평 양

심금을 울린 정치사업

신천군 호암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한 참된 애국자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실천으로 보여주신 애국주의를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얼마전 영농전투로 들끓는 현장에 나간 리당의 한 일군은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당보에 실린 어버이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독보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라는데 대한 일군의 이야기는 모두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해나가고있는 이곳 리안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더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받들어갈 일념을 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박영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보내주신 서한에 제시된 과업관철에서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 떨치자

령도업적을 체득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황해남도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받아안은 황해남도안의 당조직들의 기세가 대단히 좋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나라의 농업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는데로 당사업을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농업정책은 대중에게 파악될 때 위력한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에 제시된 사상과 정신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속속들이 알려주어 대중의 정신력이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높이 발휘되게 하자.

이것이 도당위원회가 내세운 정치사업목표이고 방향이다.

도당위원회는 그 첫 공정으로 우선 일군들과 당원들, 농업근로자들속에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쌓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이를 위해 선전선동부에서는 서한의 내용을 가지고 해설담화제강과 학습자료를 품을 들여 만들었다.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사상정신적량식을 주고 혁명과업수행에로 추동하기 위해서였다.

우선 현지지도단위들을 중점대상으로 정하였다. 도적인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여기에 총집중하는 방향에서 당사상사업을 설계하였다.

이 사업에 선전선동부일군들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의 일군들이 다 참가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도당위원회일군들이 담당한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일제히 진행하였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 내려간 도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53(1964)년 2월 25일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이라는데 대하여 서한의 매 문장, 매 문구를 놓고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의 기본체계와 내용을 보여주는 걸그림을 가지고 안악군 오국협동농장과 신천군 새날농장의 농업근로자들속에 내려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한평생 포전길을 걸으시며 나라의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해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야말로 나라의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만년재보라고 하면서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도당위원회는 농업근로자들의 수준과 준비정도, 맡은 일의 특성에 맞게 정치사업을 짜고들면서 이 사업에 당초급선전일군들도 적극 인입시켰다.

우선 선동원들을 준비시키는데 품을 들이였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가 도안의 농업부문의 선동원들에게 독창적인 분조관리제를 창조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과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학습자료를 내려보내여 그것을 깊이 학습하고 분조원들속에서 해설사업을 하게 한것이 그 실례이다.

분조원들과 늘 함께 일하는 선동원들이 자기 말로 구수하게 격식과 틀이 없이 진행하는 선동은 분조원들의 귀에 쏙쏙 들어갔다.

나라의 농업발전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은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진행되고있는 문답식학습경연준비를 통해서도 더욱 심화되고있다.

도당위원회가 문답식학습경연을 조직하기로 한 목적은 일군들과 당원들, 농업근로자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한에서 제시하신 사상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시키기 위해서였다.

이에 맞게 도당위원회는 우선 학습제목을 미리 제시해주었다. 하여 일군들과 당원들, 농업근로자들이 서한에 담겨진 사상과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파악하게 하였다.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을 새겨주기 위한 사업은 위력한 선전선동수단인 방송선동을 통해서도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시, 군방송선전차들과 협동농장의 포전방송기재들이 일제히 방송포문을 열었다.

도적으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수천대의 포전방송기재들이 전개되여 그 위력을 떨치고있다.

협동농장의 당초급선전일군들은 포전방송기재를 메고 농업근로자들이 일하는 포전을 순회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내용을 반복하여 해설해주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이라면 수십리길이라도 찾아가야 한다는 립장에서 신발에 묻은 흙이 마를 사이없이 포전길을 누벼가고있다.

도당위원회는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을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 모든 부서의 일군들이 포전을 타고앉아 농장원들에게 자기 단위에 주신 령도업적을 체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포전머리에서 진행되고있는 연고자들과의 이야기모임, 학습담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심화되고있는 령도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당원들,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분출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작전과 지휘를 실속있게 짜고들어

평안남도안의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안의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군당위원회들의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당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기 군에서 농사를 잘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숙천군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서한에서 밝혀주신대로 전형작업반, 전형분조를 창조하고 작업반과 분조들이 그 단위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전형단위가 되도록 떠밀어주는 방법으로 전형단위창조사업을 진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흥오농장, 검산농장 등 많은 농장들이 약전농장을 비롯한 앞선 농장들을 따라잡기 위한 맹렬한 추적전이 벌어지게 되였으며 농장호상간, 작업반호상간, 분조호상간 전형단위창조를 위한 경쟁열풍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증산군당위원회에서는 분조장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알곡증산의 근본열쇠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군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얼마전 군당위원회에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의 련계밑에 무본협동농장에서 군안의 분조장들의 기술실무전습회를 의의있게 조직진행하였다.

전습회의 목적은 분조장들을 모든 농사일에 정통하고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새 세기의 진짜배기실농군으로 준비시키자는데 있었다.

전습회의 실효는 컸다. 전습회를 통하여 군안의 협동농장 분조장들은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자면 자신들부터가 농사일에서 모르는것, 막히는것이 없어야 하며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루어야 한다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또한 군안의 협동농장분조장들을 대상으로 경험교환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여 분조장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여나가고있다.

안주시당위원회에서는 부림소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중시하고 그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여러 모임과 계기들에서 시당위원회일군들에게 부림소관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는것과 함께 일군들이 아래단위들에 자주 내려가 부림소관리공들을 만나 걸린 문제도 알아보고 그들의 생활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고있다.

시당위원회일군들, 시급기관당, 행정일군들, 시안의 공장, 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이 직접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영양이 약한 부림소들을 1마리이상씩 맡아가지고 부림소들의 영양을 개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이것은 부림소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이밖에도 문덕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각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영농전투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안아오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농장벌이 끓어번지게 하는 경제선동

평안북도안의 농업부문 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안의 농업부문 당조직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욱 힘차게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의 무대를 포전으로 옮기고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농장원들의 열의와 기세를 돋구어주고 온 농장벌이 알곡증산투쟁으로 끓어번지게 하여야 합니다.》

룡천군안의 신암, 쌍학, 룡송협동농장들과 양서농장의 당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의 내용을 선동원들이 깊이 학습하도록 한 다음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 들어가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피현군안의 협동농장당조직들에서도 선동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서한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나가도록 하고있다. 특히 로중, 룡계협동농장 당조직들에서는 선동원들에게 활동방향을 정확히 주고 선동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광리협동농장 제4작업반 2분조 선동원 박춘심동무를 비롯한 이 농장의 선동원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에 밝혀진대로 선동사업을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벌려 농장원들의 심장을 애국열의로 뜨겁게 끓어번지게 함으로써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실적을 높여나가고있다.

삼성, 원봉, 석화협동농장을 비롯한 선천군안의 협동농장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이 들끓는 포전에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선동원들에게 정황과 계기에 맞는 선동방법들을 잘 배워주어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곽산군안의 농촌선동원들도 당조직의 지도밑에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선동활동을 적극 벌리고있다. 특히 원하, 초장협동농장의 선동원들이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당면한 농사일을 알심있게 해나가도록 선동활동을 잘해나가고있다.

운전군안의 농업부문 당조직들에서도 대중의 심장을 끓게 하는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보석리당비서 방현식동무를 비롯한 군안의 리당일군들은 알곡증산의 예비가 농장원들의 정신력발동에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그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적극 진행해나가고있다. 운하협동농장의 선동원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올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고무추동하는 경제선동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힘차게 들이대고있다.

구장군안의 농촌당일군들과 선동원들도 경제선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읍, 룡철, 조산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당조직들에서는 영농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전투장마다 포전방송기재를 갖추어놓고 일터가 들썩하게 경제선동을 벌려 매일 작업실적을 부쩍 올리도록 하고있다.

내옥, 옥강협동농장을 비롯한 삭주군안의 협동농장당조직들에서는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초급선전일군들을 발동하여 대중의 심장을 끓게 하는 경제선동의 도수를 높여나가고있다.

이밖에 동림, 대관, 천마군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시, 군의 협동농장당조직들에서도 당일군들이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선동원들의 역할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전투장마다에서 경제선동의 포성이 쾅쾅 울리게 하고있다.

당일군들과 선동원들을 비롯한 당초급선전일군들이 한결같이 떨쳐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을 줄기차게 벌리고있기에 평안북도안의 협동벌들은 영농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포전을 화선식정치사업의 활무대로

함경남도안의 농촌당초급일군들

력사적인 서한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함경남도안의 농촌당초급일군들이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애국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본때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증산의 열쇠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함주군안의 당초급일군들이 대중발동의 앞장에 섰다.

동봉협동농장 농산제4작업반 부문당비서 문상진동무는 모든 분조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독보하는것으로부터 하루일과를 시작하도록 하는 등 작업반원들을 무장시키는 사업을 앞세웠다. 분조장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한에서 가르쳐주신 분조장의 다섯가지 임무를 수첩에 적어가지고 다니며 학습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였다. 매일 새벽 집과 마을주변을 돌면서 진거름을 모아들이고 흙구이도 하는 등 실천적모범으로 작업반원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동봉협동농장 농산제6작업반 당세포비서 장태용동무 역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작업반원들을 알곡증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작업반이 새로 조직된 실정에 맞게 그는 작업반원들을 한마음한뜻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분조별로 진거름확보경쟁을 조직하고 자기가 직접 매일 아침 소달구지를 끌고다니면서 실천적모범을 보이였다. 그리하여 작업반에서 2월말까지 강냉이 영양단지찍기를 질적으로 끝낼수 있게 하였다.

주서, 송정, 련포, 조양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여러 농장당초급일군들도 력사적인 서한의 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발동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맹렬하게 들이대고있다.

금야군안의 농촌당조직들에서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소행들을 제때에 소개선전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통하여 대중을 혁신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대회에서 토론한 구룡협동농장 농산제6작업반 1분조장 장명철동무가 대회장에서 돌아오는 길로 분조원들과 함께 수십t의 거름을 실어내고 휴식일에는 안해와 함께 수십점의 보습과 강냉이영양단지찍는기계를 수리하는 긍정적소행을 발휘하였을 때였다. 작업반당조직에서는 모든 분조장들이 그의 모범을 따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올해농사실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따라세웠다. 농산제2작업반 부문당비서 김승경, 농산제1작업반 부문당비서 김경철동무들 역시 분조장들을 적극 내세워주면서 뜨거운 인정미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올해농사차비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백산협동농장 농산제4작업반 당조직에서는 제대군인분조장 리대송동무가 대회에서 돌아온 날 분조원들과 함께 한겻동안에 10여t의 니탄을 캐내고 안해와 함께 소달구지를 끌고 여러t의 거름을 실어낸 소행을 분조장들에게 즉시에 알려주어 그들이 혁신의 앞장에 서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청동협동농장 농산제3작업반 당조직에서는 대회에서 돌아온 날 밤 천수백kg의 질좋은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한 분조장 주국철동무의 모범을 모든 분조장들이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농사차비를 지난해에 비하여 보름이상 앞당기게 하였다.

정평군, 단천시, 영광군안의 농촌당조직들에서도 대중정치사업에 힘을 넣어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대홍단군 창평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3중모범청년분조칭호 여러 단위에 수여

【평양 3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농촌테제의 기치높이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은산군 대양농장, 연안군 도남협동농장, 안악군 신촌협동농장, 경원군 룡현협동농장, 룡강군 옥도목화전문협동농장 청년분조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 3중모범청년분조칭호가 수여되였다.

수여식이 3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있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들, 모범적인 청년분조원들이 수여식에 참가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수여사에 이어 3중모범청년분조의 영예를 지닌 단위들에 표창장과 기발 등이 수여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려 농촌테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더 높은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여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로농통신원들이 보내온 소식

로농통신원 서종남동무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토산군 북포리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을 가지고 충실성교양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버이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농장원대중에게 침투시키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리당일군들은 《로동신문》에 실리는 주요사론설들과 기사들을 농장원들에게 독보해주어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새기도록 하였다. 얼마전에도 리당비서는 《로동신문》을 가지고 농사차비로 들끓는 전투장들에 나가 기사를 독보해주어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 깊이 심어주었다. 당초급선전일군들도 농장원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을 해설한 《로동신문》의 기사를 독보해주면서 모두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의 유훈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고무추동하였다.

* *

로농통신원 한영일동무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숙천청년과수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에 큰 힘을 넣고있다.

우선 당세포비서들과 근로단체일군들, 선동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새기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숙천혁명사적관에 대한 참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에 대한 해설모임 등 여러 계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농장에 깃든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뜨겁게 새겨안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과일생산을 늘이는 실천활동을 통하여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해나가도록 그들속에 들어가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발현되는 애국적소행들을 제때에 소개선전하고 일반화하는 사업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자

건재생산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방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자면 건재생산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건재가 없이는 건설을 성과적으로 할수 없고 질좋은 건재를 써야 건축물의 질을 높일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2월 제1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에서 현시기 건재생산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건재생산은 건설의 운명을 좌우한다. 건설에서 건재는 군대에 비유하면 총포탄과 같다. 전선에서 총포탄이 많아야 전투의 승리를 담보할수 있듯이 질좋은 건재가 많아야 건설장에서 혁신의 숨결을 높일수 있다. 여러가지 건재로 형성하는 건설물의 시공은 건재가 넉넉할 때 그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

건재는 건설물의 질과 문화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소이다. 건재가 다양하고 질이 높으면 건설물의 미학적요구도 그만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

최근에 군인건설자들이 일떠세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건재의 품종과 그 질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건재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면 무엇보다도 건설의 기본자재인 세멘트와 건설용강재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모든 건설물의 구조는 대부분이 철근콩크리트와 강재로 되여있다. 이것은 세멘트와 건설용강재가 공사를 계획대로 내밀고 완공기일을 앞당기는데 결정적영향을 미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세멘트와 건설용강재생산은 건설장의 숨결을 높이는데서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 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건설의 번영기를 열어놓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분발해나서야 한다. 세멘트와 강재생산량을 부쩍 늘이도록 현존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고 품종별, 규격별로 그 생산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골재와 부재생산을 공업화하여야 한다. 규격골재와 규격부재생산에 힘을 넣는것은 시공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규격골재와 규격부재가 많을수록 설계부문에서는 부호화된 건축설계를 작성하면서 속도를 높이고 시공과정에는 생산지가 서로 다른 건재라도 종류와 규격이 같은 주요건재품들의 검사를 빠르게 하는 등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다. 골재와 부재생산단위들에서는 규격화를 보다 원만히 실현하기 위한 기술혁신안을 적극 탐구하고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생산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건설부문에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현대적인 건재생산기지들도 더 많이 꾸려야 한다.

현시기 건재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자면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부쩍 높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건설에서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는 사업을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건재를 국산화하는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건설을 한계단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고 우리 인민들에게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당의 요구대로 국산화된 마감건재생산량을 늘이자면 생산을 전문화, 전통화하여야 한다. 자기 단위의 특성이 살아나게 품종별에 따르는 전문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가까운 앞날에 모든 마감건재를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생산해내도록 하여야 한다. 건재를 자체로 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장식건재와 록색건재, 기능성건재를 비롯한 선진기술이 도입된 건재개발과 생산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우리 식의 건구와 가구재료를 적극 개발하고 편리성과 미학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건구와 가구생산을 늘여 건설장에 더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

나라의 중요대상건설과 지방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자기 지방의 원료를 가지고 질좋은 외장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를 생산하는 기지를 잘 꾸리며 그에 의거하여 건설성과를 확대해나가는것도 중요하다.

건재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부문 일군들이 새로운 혁신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간곡한 유훈과 현시기 건재생산에서 자기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주체적건재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여 건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과학기술의 보검을 튼튼히 틀어쥐고 건재생산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투쟁에서 송풍기적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요업건재와 금속건재, 금속건구와 수지건재, 목재가공부문을 비롯하여 건재공업의 주요부문을 담당한 일군들모두가 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한다.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할 올해에 건재공업부문 일군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참으로 크다.

건재생산을 맡은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건재품생산에서 혁신하는것이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을 주는 중요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건재공업부문앞에 제시된 당정책결사옹위전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지원철

공화국공민의 책임과 본분을 다한 긍지안고 선거장에 들어서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만들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선거풍경

잊지 못할 선거와 더불어 울려퍼진 명곡들을 더듬어

봄의 계절이 시작되였다. 겨울의 추위에 얼어들었던 대지가 한낮의 해볕에 아지랑이를 피워올리고 강줄기마다에 봄시위가 흐르고있다.

약동하는 이 계절 천만군민의 마음은 우리의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게 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인민대중,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뭉치고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발표된 후 온 나라에는 선거열풍이 일어번지고있다.

지난 2월 3일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대회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는 모임이 진행된 후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지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의 대의원후보자를 추천하고 또 대의원을 선거하는 선거장마다에서 노래춤바다가 펼쳐진다.

선거와 노래춤바다,

우리의 선거풍경에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비껴있으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고있는 위력한 힘이 굽이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선거가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경쟁마당, 대결장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 땅에서는 선거가 남녀로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경사로운 명절로 되고있다.

내 나라의 선거는 첫시작도 위대한 사변이였고 선거력사 또한 동서고금에 있어본적 없는 환희의 력사였다.

주체35(1946)년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적선거가 진행되는 해였다. 이해에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그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게 되였다.

전체 인민이 참가하는 선거가 진행된다는 소식은 강산을 끓게 하였다.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인민의 대표들을 선출한다는것을 알게 된 인민들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을 자기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대하였다.

우리 인민은 오늘도 잊지 못해 하고있다.

선거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강동군 삼등면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 그곳 인민들이 펼쳐드린 무명필을,

동리사람모두가 춤노래 펼치며 어버이수령님께서 흰 무명필을 밟고 대회장에 들어가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였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청을 마다하시며 돌부리솟은 동구길을 마을인민들과 함께 걸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소박한 청을 들어주지 않으시였지만 력사의 그날은 인민의 가슴에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이 어떤분이시며 우리가 세우는 인민정권이 어떤 정권인가를 가슴깊이 새기게 한 잊지 못할 순간이였다.

그때부터 인민에게 선거는 명절이고 기쁨이였다.

해는 흘러 주체51(1962)년 조국강산에는 《선거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지였다.

…

천리마나래 펼쳐 하늘높이 날으니
지상락원 열리고 행복이 꽃피였네
당과 수령 두리에 뭉친 인민들
당과 수령 두리에 뭉친 인민들
나가세 영광스런 선거장으로
나가세 영광스런 선거장으로

…

전화의 불길속을 헤쳐온 영웅인민이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고 전설속의 천리마를 타게 되였으니 어찌 기쁨의 노래가 나오지 않을수 있으랴.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선거는 천만군민에게 있어서 경축의 명절이였다.

《천리마나래 펼쳐 하늘높이 날으니》노래를 부르며 선거장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가슴은 승리자의 긍지로 부풀어올랐다.

미제가 백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던 땅에 거세찬 연기를 내뿜는 용광로를 일떠세우고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거리와 마을을 일떠세운 우리 인민은 찬성의 한표로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신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는 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고 행복과 번영이 펼쳐지였다.

이것을 우리 인민은 혁명의 년대마다에 투쟁의 진리로 새기였다.

주체71(1982)년 2월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되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감한 공격전이 벌어지는 속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하게 된 인민의 기쁨을 반영한 또 한편의 《선거의 노래》,

…

희망찬 미래로 달리는 나라
당중앙 따라서 한길로 가네
수령님 높이 모신 인민의 주권
굳게 뭉친 우리 힘 떨치여가자

력사의 그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져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민주주의를 반영한것이 선거이지만 갖은 권모술수와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치르어지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선거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선거가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가 더욱 공고해지는 사랑의 서사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대표들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을 몸소 만나주시여 조국과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고무격려해주시였으며 찬성투표를 하시였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거가 진행되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하는것을 제일 큰 영광으로 여기였으며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는 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찬성의 한표를 바치였다.

인민주권을 다지는 우리의 선거는 선군혁명의 나날에도 더욱 환히 빛나 진행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던 주체87(1998)년을 천만군민은 오늘도 잊지 못해하고있다.

공화국창건 50돐이 되는 력사의 해에 우리는 인민주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선거를 진행하게 되였다.

선군의 기치높이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한 우리 조국은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주로에 들어섰다.

격동적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선거의 노래》가 이해에 태여나 조국강산을 진감하였다.

사회주의 내 조국 해빛밝은 강산에
경사로운 선거의 노래넘치네
우리의 혁명주권 반석같이 다지여
인민의 내 나라 길이 빛내자 길이 빛내자

…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신 우리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백승만을 떨치고 맞이하는 우리의 선거였다.

승리자의 긍지와 영예를 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진행하게 된 온 나라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주권강화에서 인민군대가 언제나 앞장서나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를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하시였다.

《인민의 내 나라 길이 빛내자 길이 빛내자》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천만군민은 인민의 내 나라를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것이 어떤것인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바로 이해에 우리 나라에서 첫 인공지구위성이 성과적으로 발사되였고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된 **김일성**헌법을 받아안고 우렁찬 환호성을 터치였으며 경축의 춤바다를 펼치였다.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되는 크나큰 경사로 온 나라가 환희로 들끓던 때로부터 어느덧 십여년세월이 흘렀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열어나가고있으며 그 길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굽이치고있으며 초소와 일터마다에서는 경축의 노래가 울려퍼지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우리 조국의 존엄을 빛내이시기 위해 **김일성-김정일**헌법과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의 선거는 기다려지는 명절로 되고있다.

나라마다 선거가 진행되고있으며 선거장에 들어서는 사람들마다 앞날에 대한 기대를 안고 투표한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태양민족된 한없는 긍지와 영예를 안고 삶의 요람인 인민주권을 제손으로 굳건히 다지기 위해 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고있다.

선거표를 받아안으며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만방에 떨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는것이며 그 마음안고 찬성의 한표를 바친다.

차 수

앙양된 분위기로 끓게 하는 정치사업

자강도안의 당조직들에서

자강도안의 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한 크나큰 환희에 넘쳐있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인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인민정권이 있음으로 하여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고있다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으며 인민정권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습니다.》

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선군조선의 공민된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공화국정권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강계시와 희천시, 만포시당위원회에서는 방송선전차를 리용하여 시안의 거리들에서 선거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방송선전을 힘있게 벌리면서 학생취주악대, 가창대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군당위원회들과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선거장들과 공공장소들에 많은 구호와 선전화들을 게시하여 선거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인민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선거와 관련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 시,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정권기관 일군들도 각지 선거구들에 나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선거와 관련한 사업들을 적극 이끌어주고있다.

도안의 공장, 기업소당조직들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오늘의 총진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도에서는 천수백t의 파철을 마련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도안의 금속공업부문에 보내주었다.

그리고 수천t의 질좋은 유기질거름과 15종에 달하는 1만 수천점의 중소농기구를 마련하여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장강군, 강계시의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흥주닭공장, 강계돼지공장을 비롯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안고 닭알, 고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강계청년발전소, 흥주청년 1, 2호발전소, 강계편직공장, 강계은하피복공장, 장강군 읍협동농장, 장평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도안의 전력공업부문, 경공업부문, 농업부문들의 당조직들에서도 모든 선거자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맞으며 사회주의증산경쟁의 열풍속에 생산적앙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충정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더욱 빛내여갈 불같은 맹세를 안고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계절이여서 이 봄날의 기운이 그리도 후덥게 느껴지는것인가.

나의 귀전에 가락맞게 들려오는 음향이 있다.

며칠전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았을 때 기대마다에서 울리던 동음이다.

새 세대 혁신자들과 나란히 창조의 구슬땀을 흘리던 김봉례영웅정방공의 모습이 기대의 그 음향과 더불어 자꾸만 눈가에 어려온다.

그가 터놓던 목소리는 얼마나 격정에 젖어있었던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우리의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져갈 결의에 넘쳐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32호구 제23호분구선거위원회에서— 본사기자 찍음

수 필

선거표의 무게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수십년전 몸소 공장에 찾아오시여 평범한 로동자에게 찬성의 한표를 바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이 그리워진다고,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이 너무 고마와 선거날이면 남먼저 선거장에 달려나가 찬성의 한표를 바치군 했다고, 오늘은 또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한 기쁨안고 선거에 참가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일해도 힘든줄 모르겠다던 그의 이야기는 나의 마음속금선을 세차게 흔들어놓았다.

그러고보면 그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세분의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영광의 시대들과 더불어 선거자의 기쁨을 꽃피워가는 복받은 주인공들중의 한 사람이였다.

이것을 어찌 흥하는 세월에 로당익장하는 한 인간의 삶의 희열로만 헤아릴수 있으랴.

두세기,

많은 나라들에서 몇번이고 정치적동란이 일어나고 근로하는 인민들의 운명을 무참히 짓밟는 피눈물의 력사가 새겨진 그 오랜 세월속에 우리 인민은 과연 어떤 모습을 새겨왔던가.

선거표,

정녕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져가는 길에 바쳐진 그 하나하나의 표들에는 비껴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창공에 나래펴던 천리마의 기적이,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차넘치던 비약의 화폭들이, 우리 장군님 이어가신 선군의 한길따라 끝없이 마중오던 행복의 날과 달들이…

그렇다.

우리의 선거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긴 그 위대한 인민의 존엄과 긍지, 행복이 함축되여있다.

인민이란 그 두글자가 그렇듯 무거울진대 인민의 그 복받은 모습, 긍지높은 력사가 비낀 우리의 선거표가 어찌 무겁지 않을수 있겠는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가시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날로 높이 떨쳐지는 인민의 존엄과 긍지를 전하는 내 조국의 선거표!

그래서 우리의 선거표는 무겁다.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 내 조국의 고마움을 노래하고 노래해도 끝이 없는것만큼,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이 땅의 모든 공민들의 영광이 끝이 없는것만큼!

본사기자 박옥경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하여

룡천군 양서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올해 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관철에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해설담화, 직관선동, 포전방송기재를 통한 선동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는 사업을 정황에 맞게 잘 조직해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선동원들을 적극 발동하여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타격방향을 지켜선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면한 농사일에서 높은 애국적열의를 발휘하도록 선동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또한 초급당일군들은 작업반별, 분조별, 개인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모두가 높은 승벽심을 안고 농사일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장포전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거름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으며 씨뿌리기준비도 착실하게 해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박금옥

장하다, 선군시대 제대군인대학생들

제대군인들은 무장으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켜왔으며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우리 혁명의 핵심들이다.

어제날 병사들의 혁명적인 기상과 면모, 투철한 혁명의식은 사회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그러한 청년들가운데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대학으로 달려온 제대군인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 조국에 대한 도덕적의무를 지켜야 하며 온 사회에 건전한 도덕기풍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많은 제대군인대학생들이 대학안에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선도자적역할을 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5학년 학생 문영진동무는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 불러준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일념안고 아글타글 공부하여 전과목에서 최우등을 함으로써 **김일성**장학금수상자로 되였으며 학급청년동맹초급일군으로서 다른 동무들의 학습을 적극 방조해주었다.

해주제2사범대학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건설학부 4학년 학생 안성건, 고려성균관 식료공학부 4학년 학생 윤춘섭, 구성공업기술대학 전기전자공학부 4학년 학생 김영현동무들도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전과목에서 최우등을 하여 **김일성**장학금수상자의 영예를 지니였고 다른 동무들의 학습과 생활을 적극 도와주었으며 김영현동무는 대학기간 여러건의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성석탄공업대학 석탄탐사학부 4학년 학생 최광우동무는 선군시대 제대병사라는 긍지를 안고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우는데 앞장섰을뿐아니라 학급당세포비서로서 동무들의 학습과 생활을 적극 도와주었고 당세포가 충성의 당세포대렬에 들어설수 있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강계농림대학 농학부 4학년 방혁철동무도 본신혁명과업수행에 앞장서면서 다른 동무들의 학습도 적극 방조해주었으며 과학탐구활동을 힘있게 벌려 대학생과학탐구상을 수여받았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림상제1의학부 5학년 학생 리의종, 김책공업종합대학 선박해양공학부 6학년 학생 김일호동무들도 대학에 입학한 첫날부터 꾸준히 학습하여 전과목에서 최우등을 쟁취하였다. 리의종동무는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 과정에 대학생과학탐구상을 수여받았고 학급이 발명가학급, 대학생과학탐구상학급으로 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으며 김일호동무는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 가치있는 창안품을 출품하여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김일호동무는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지니고 다른 동무들의 학습도 적극 방조해주었다.

이밖에도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경제관리학부 6학년 학생 김철, 평양기계대학 재료공학부 5학년 학생 리정식, 리수복순천화학공업대학 기계공학부 3학년 학생 리명일, 신의주제2사범대학 물리학부 4학년 학생 김금석, 해주의학대학 제2의학부 4학년 학생 정광호, 원산의학대학 제2의학부 6학년 학생 윤광원동무를 비롯한 많은 제대군인대학생들이 지식과 실력이 있어야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앞장에 설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나가는데서 선도자적역할을 하고있다.

제대군인대학생들은 대학안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서도 앞장서고있다.

혜산농림대학 기계공학부 3학년 학생 최광현동무는 당생활에 모범적으로 참가하고있으며 다른 동무들의 학습과 생활을 적극 도와주고있다.

희천공업대학 콤퓨터조종공학부 4학년 학생 손영진동무는 학급동무들이 대학안에 제정된 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이끌어주고있으며 가정생활이 어려운 학급의 한 동무를 성심성의로 도와주어 그가 학습에 전심하도록 하였다.

청진광산금속대학 정보공학부 3학년 학생 김승철, 리계순 사리원제1사범대학 혁명력사학부 3학년 학생 리강철동무들도 병사시절처럼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였다.

학급당세포비서인 김승철동무는 대학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더욱 정중히 꾸리는 사업에 깨끗한 충정을 바치였고 리강철동무 역시 학급당세포비서로서 한학급동무가 결혼식을 한다는것을 알고 결혼상을 성의껏 차려주었다.

사리원제2사범대학 어문학부 2학년 학생 곽철진동무는 영예군인처녀의 건강과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던 과정에 그의 영원한 길동무, 방조자가 될것을 결심하고 영예군인과 가정을 이루는 미풍을 발휘하였다. 군사복무시절 혁명적동지애를 체질화한 그는 학급동무들이 앓을 때면 약재도 구해주고 밤을 새워가며 간호도 해주고있다.

원산농업종합대학 농학대학 농학과 3학년 학생 김명선동무는 학급동무들이 대학에 제정된 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이끌어주고있으며 부모잃은 학급동무들에게 해마다 생일상도 차려주고 한 학생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여러차례 영양식품을 준비해가지고 찾아가 고무해주어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준것을 비롯하여 다른 동무들의 생활을 적극 돌봐주고있다.

이밖에도 청진제2사범대학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건설학부 3학년 학생 리명철, 함흥약학대학 합성제약공학부 4학년 학생 오진영, 함흥경공업대학 기계공학과 4학년 학생 김영일, 혜산의학대학 고려의학부 3학년 학생 김철민, 남포수산대학 기계공학부 3학년 학생 김경덕을 비롯한 많은 제대군인대학생들이 대학안에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워나가는데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제대군인대학생들속에서 꽃펴나고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가슴뿌듯이 느끼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들의 소행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온 나라가 알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리경일

중국 대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중국 대북의 신북시에서 진행된 중국 대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3일 귀국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에티오피아, 케니아, 마로끄, 프랑스, 중국 대북을 비롯한 8개 나라와 지역의 남녀선수 3 500여명이 참가하였다.

훌륭한 경기성과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한마음을 안고 녀자마라손경기에 출전한 우리 나라의 김지향선수는 완강한 의지와 인내력, 평시에 련마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2시간 34분 52초로 결승선에 제일먼저 들어섰다.

경기에서 1등을 하고 우승컵을 쟁취한 김지향선수에게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이 경기에서 림금희선수는 3등을 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이 선수들을 마중하였다.

체육인들이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하였다.

유럽의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대표단 도착

영국레이버당출신 전 수상의 판방실장이였던 죠나탄 포웰 국제중재기구 최고집행관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의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대표단이 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활발히 진행되는 대중체육활동

안악군 신촌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면한 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대중의 열의를 더한층 고조시키는데서 대중체육활동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한 농장의 일군들은 모든 농장원들이 대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작업반들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농사일도 하고 저녁시간이나 휴식일을 리용하여 다양한 체육경기도 진행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작업반별체육경기에서는 언제나 혁명적랑만과 기백에 넘쳐 맡은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는 제3, 4작업반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체육열풍이 고조되는 속에 뜻깊은 올해에 높은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이곳 농장원들의 경쟁열의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로농통신원 렴창성

최전방초소에 새겨진 위대한 애국의지는 머지않아 통일을 안아올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판문점시찰 2돐에 즈음하여

천출명장의 통일의지를 힘있게 선언한 력사적사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소식으로 온 삼천리강토가 충격으로 끓어번졌던 때로부터 2년이 되였다. 하지만 민족의 어버이를 너무도 뜻밖에 잃고 하늘이 꺼져내리는듯한 비통함에 잠겨있던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밝은 희망과 승리의 확신을 안겨주고 내외분렬주의자들에게는 공포와 패배감을 들씌운 판문점충격은 오늘도 천파만파의 갈기를 일으키며 끝없이 퍼져가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감행해나선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다치면 터질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그 준엄한 시각에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단행하신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은 결코 례사로운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실 철석의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평생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면서 품들여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이 땅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판문점은 민족분렬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워있는 곳인 동시에 온 겨레의 통일열망이 모아지는 곳이다. 침략을 노리는 총구에서 불꽃이 튀여나온적은 그 얼마였고 돌발적인 사건이 전쟁으로 번져질번 했던 사태는 또 그 얼마였던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탄의 뢰관처럼 아슬아슬한 긴장과 위기가 항시적으로 감돌고있는 이 대결의 최전방을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찾으시였다. 더우기 그때로 말하면 내외호전광들이 전쟁의 검은 구름을 미친듯이 몰아오고있던 시기였다.

적들은 우리 인민이 대국상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고있던 당시 그 무슨 《급변사태》와 《체제변화》에 대해 떠벌이며 북침전쟁을 도발하려고 피를 물고 날뛰였다. 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사태였다.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조선반도를 주시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낮에 판문점을 찾으시였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충격은 더욱 컸다. 그에 대해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청청하늘에서 섬광이 일고 천둥소리를 듣는것 같아 깜짝 놀랐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공중분해되는것을 보는것 같다.》라는 보도들을 련속 날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판문점시찰은 백두산장군의 드센 배짱과 강철의 담력,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확고부동한 통일의지를 지니신 절세의 위인만이 단행하실수 있는 력사의 장거였다.

그처럼 위험한 곳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게 된 일군들은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히려 여유작작한 자세로 환히 웃으시며 일군들과 군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였다.

돌이켜보면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기울이신 로고와 심혈은 그 얼마나 큰것이였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조국통일문제가 자리잡고있었고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실 억센 의지가 맥박치고있었다.

그러하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길에 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친필비를 판문점에 세우도록 하시였고 몸소 판문점에 나오시여서는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실 철석의 맹세를 다지신것 아니랴.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숨결과 거룩한 발자취가 력력히 어려있는 수령님의 친필비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친필비앞에 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와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마음써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수령님의 친필비를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친필비문의 글발을 한글자한글자 주의깊게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깊이 회억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한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과 판문점의 초병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동행한 일군들에게 우리 함께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할 의지를 다시한번 가다듬는 의미에서 수령님의 친필비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물론 판문점의 전초병들도 18년전 위대한 장군님의 그 모습으로 판문점을 찾으시여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전사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한자리에 모신 무한한 행복감으로 가슴이 후더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한낮에 적들이 코앞에 바라보이는 로대에까지 나가시여 불과 수십m앞의 남녘땅을 쌍안경으로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는 통일된 삼천리강산을 후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시려는 굳은 결심과 의지가 비껴있었다. 병사들과 함께 사진도 찍으시는 그이의 배포유한 모습에서 일군들은 무궁번영할 통일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았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력사가 깃들어있는 정전담판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가 반영된 판문각과 통일각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될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은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선군의 총대로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실 절세위인의 애국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선언한 민족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판문점시찰소식은 삼천리강토를 진감시키고 온 겨레를 격동시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판문점시찰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남조선인민들은 《젊으셨지만 매우 로련하고 경험이 풍부하시며 두려움을 모르시는분》, 《천하를 울리는 담대한 배짱의 과시》, 《그분의 사상은 분명 총공격사상이고 정치방식은 전면공격방식》이라고 격찬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남조선의 한 정세분석가는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판문각에서 쌍안경으로 남쪽을 내려다보시였다. 그 엄엄하고도 서리발같이 날카로운 모습에는 분렬주의세력을 용서치 않겠다는 비장함이 력력하였다. 이제 통일은 다 된것이나 같다.》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였다.

판문점에 조국통일을 위한 령도의 위대한 자욱을 아로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찰을 통해 우리 겨레는 또 한분의 희세의 천출명장, 탁월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격정과 환희를 금치 못했으며 온 민족의 한결같은 숙망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확신을 가다듬었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달성되고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이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에서 굳게 다지신 철석의 의지의 빛나는 실현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불변의 신념을 안으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였기에 조국통일의 아침은 머지않아 밝아오고야말것이다.

천하제일명장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라설하

온 겨레가 따르는 민족의 태양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뛰여난 정치실력, 탁월한 령도예술로 선군조선의 기상을 온 누리에 떨치시고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심을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우리 민족과 세계민중에게 위대한 태양을 안겨주시였다. 만민은 김정은제1위원장의 모습에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보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고 종말을 고하게 하는것과 동시에 온 세계가 김일성, 김정일민족을 우러러보게 하겠다는 배짱을 지니신 젊은 지도자이시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시는 정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펼치고계신다.》

남녘의 겨레들이 터친 이 위인칭송의 목소리들은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의 분출이다.

서울의 한 정치학교수는 《최근 세계의 관심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로 모아지고있다. 그분께서는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해놓으신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세력의 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신다.

령도자와 인민이 굳게 결합되여있는 북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나아갈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민족의 창창한 래일이 밝아온다는것은 남녘인민들의 심장속에 굳게 간직된 신념이다. 하기에 그들은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것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최상최고의 영광이며 긍지이고 자랑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는것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활동을 보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유훈을 100% 정확히 계승하고있음을 분명히 확인할수 있다.》

《지금 온 세계가 북의 군대와 인민이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령도따라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령수가 위대한 단결을 낳는다. 마침내 하나로 통일될 겨레여, 온 세상에 자랑하시라. 21세기의 태양이 펼치는 위대한 민족단합의 하늘아래 그대들이 산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으로 열렬히 칭송하고 따르며 터치는 이 심장의 웨침들은 정녕 그이만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으로 굳게 믿고 따르며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실 의지의 발현인것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위대한 선군정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

지금 남녘겨레의 가슴마다에는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이의 선군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해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미래는 창창하며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것이라는 신념이 넘쳐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의 이러한 신념은 백두의 선군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선군혁명의 승리를 앞당겨가시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민족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주도하실 통일애국성전에 모두가 떨쳐나서자.》라고 터치는 격정의 목소리들에 그대로 어리여있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교수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생명이고 존엄이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려면 선군정치를 절대지지하고 성원해야 한다. 이것은 선군정치의 덕을 입는 우리 이남민중이 당연히 지켜야 할 민족적도리이고 의무이다. 량심에 살고 의리에 살려는 사람이라면 정치인이건 재력가이건 신자이건 누구라없이 당연히 선군정치에 감사의 큰절을 드려야 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선군정치를 돕고 받들어야 할줄로 안다.

이남민중은 민족의 운명을 어떤 외적도 감히 롱락하지 못하게 억세게 지켜주는 이북의 선군정치를 받드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정견과 신앙, 소속의 차이,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 민족 지키는 이북의 선군정치에 지지성원을 아끼지 말자.》

남조선의 한 재야인사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국력이 강한가 약한가 하는것을 결정하는데는 물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강한 국력의 첫째가는 징표는 강한 군사를 가지는것이며 그것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군술과 지략을 지닌 절세의 위인을 모실 때에만 가능한것이다.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장군중의 장군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님의 령도로 이북의 인민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되였으며 오늘날 김정은최고사령관님의 지휘하에 무적강군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더욱 높이 떨치고있다.》

《우리 사회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는 김정은제1위원장에 의해 변함없이 계승될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세계의 관심은 김정은제1위원장께로 모아지고있다.

그분의 정치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사상과 리념, 방법론에 기초하여 펼쳐지고있다는것이 내외평론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고 확신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선군정치에 대한 남녘겨레의 이러한 흠모심은 언론들을 통해 더욱 부각되고있다.

남조선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무자비하게 짓부시며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시기에 태양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조국통일의 휘황한 앞날에 대해 확신하고있다고 하면서 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면과 화면에 담고있다.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맑게 개인 대낮에 판문점을 시찰하신것은 무비의 담력과 조국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님의 판문점시찰과 관련하여 우리 언론들이 내보낸 사진자료에는 김정은최고사령관님께서 판문각에서 쌍안경으로 남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다. 이날 김정은최고사령관님은 수행원들, 판문점군인들과 함께 환히 웃으시며 사진을 찍으시고 군인들의 군화도 꼼꼼히 보아주시였으며 군인들의 식사를 책임진 종업원들과도 사진을 찍으시였다고 한다.

김정은최고사령관님의 판문점시찰공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연습을 겨냥한 반격이며 너희들이 아무리 날뛰여도 우리의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어째볼수는 더욱 없다는 식의 강한 배짱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님은 결심이 단호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기질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결심하면 주저할줄 모르고 한번 타격하면 불바다로 만드는 김정은최고사령관님의 기질을 쉽게 봐서는 안된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애국애족의 정치인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옹호하며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토로하는 남녘겨레의 마음들은 정녕 뜨겁고 열렬하다.

본사기자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길을 밝히는 등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온 삼천리강산에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가득히 넘쳐흐르고있다.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오는 위인칭송의 목소리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우리 민족은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령도자를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여 이북의 미래는 창창하며 김정일장군님께서 그토록 념원하신 사회주의강성국가도, 조국통일의 새 아침도 반드시 밝아올것이다.》, 《조선반도의 미래는 김정은최고사령관에 의해 결정될것이며 무적필승의 령장을 모시여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된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전면적등장으로 미국과 서방이 공포에 떨고있다. 그분께서 주도하실 통일애국의 성전에 흔들리지 말고 합세해나서자.》…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심정을 대변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주체101(2012)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경축하는 뜻깊은 열병식장의 높은 연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반드시 이룩할 철석의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인 연설이였다.

어찌 그뿐이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한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여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분렬은 곧 매국이라고 하시면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조국통일을 민족최대의 가장 절박한 과제로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타는 통일의지가 빛발치는 로작들을 받아안으며 해내외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6.15의 길을 따라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새해 첫날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겨레들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새해인사를 보내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어버이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자주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실 철석의 의지가 어려있는 그이의 신년사는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이해에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해 나서는 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지금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최근년간 극도로 악화되였던 북남관계가 개선의 궤도에 오르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가 안아온 결실이다.

삼천리조국강산에 메아리치고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해내외 온 겨레의 열렬한 흠모와 칭송의 목소리는 그이를 통일의 태양으로 우러르며 그이따라 자주통일위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갈 신념과 의지의 뚜렷한 발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시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할것을 다짐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가 전한데 의하면 얼마전 민가협 량심수후원회가 민주주의압살과 《유신》독재부활에 맞서 자주통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것을 결의하였다.

서울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가진 단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전쟁을 막으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이 단체의 명예회장과 전 상임의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통일운동세력은 탄압당하고 《대통령선거》에 불법개입했던 정보원선거개입사건 관련자들은 무죄를 선고받는 등 비정상적인 사태가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독재통치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안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절박한 과제이며 분렬의 종식을 위해 북과 남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결의문은 군부독재폭압에 맞서싸우다 부당하게 구속된 량심수들의 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모였던 민가협 량심수후원회 회원들이 오늘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유신》독재부활세력에 맞서고 대결과 전쟁이 없는 통일된 세상을 안아올 력사적과제를 안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하면서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범민련과 철도민영화반대투쟁에 대한 탄압을 일삼으며 제주해군기지, 밀양송전탑건설을 강행하는 현 《정권》을 규탄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사업과 북침전쟁연습은 량립될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며 북침전쟁연습을 중지시키고 반민주적악법들을 철폐하기 위해 굴함없이 투쟁할 의지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일본반동들의 위험한 망동을 규탄

남조선 인터네트신문 《노컷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기독교교회협의회가 2월 2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로 아시아나라들에 력사적상처를 남긴 일본이 군국주의부활에로 나가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파국으로 몰아갈 위험한 망동을 당장 중지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이 과거침략사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한편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강원도《의회》가 2월 20일 춘천에서 일본의 독도강탈책동과 력사외곡망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의회》는 일본이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도발을 일삼고있다고 하면서 《다께시마(독도)의 날》 행사놀음계획을 즉시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일본이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과거 반인륜적죄행들에 대해 사죄하고 야스구니진쟈참배와 력사교과서외곡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각종 사고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2월 15일 남조선의 부산앞바다에서 선박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연료탕크가 파손되면서 많은 기름이 흘러나와 바다가 오염되였다.

* *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2월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의 한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암모니아가스가 루출되고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였으며 여러명이 부상을 입거나 실종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행위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루는것은 우리 겨레의 간절한 소원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을 위해 투쟁하는 해내외의 온 민족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전쟁의 근원이 영영 사라지고 항구적인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더우기 우리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모처럼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마련되고있는 오늘 조선반도에 절실히 필요한것은 평화적인 환경이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은 평화적환경보장에 엄중한 저해를 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보도된바와 같이 2월 24일부터 미국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년례적인 방어훈련》을 운운하며 남조선 전지역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하였다.

이 연습에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군의 방대한 무력 그리고 핵잠수함을 비롯한 최신공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이 동원된다고 한다. 이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로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남조선 각계가 내외호전광들이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북의 심장부를 겨냥한 선제적인 공격연습》이라고 일치하게 규탄하면서 우려와 불안을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또다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였다. 현실은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는것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한시도 늦출수 없는 시대적과제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귀중한것은 없다.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자면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되여야 한다.

미국이 벌리는 북침전쟁소동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기본장애요인이다.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있다. 미국은 말로는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지지》를 떠들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북남대결상태의 지속을 통해 저들의 침략적리익과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려고 꾀하고있다.

미국이 북침을 가상한 합동군사연습을 요란히 감행하는것은 정세를 평화가 아니라 대결과 긴장의 극단상태에로 끌어감으로써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망쳐놓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수립에 제동을 걸려는 술책이다.

최근 북남사이에 관계개선의 기운이 나타나자 미국의 고위관리들과 대북전문가로 자처하는 자들이 저저마다 나서서 그에 찬물을 뿌리는 망발들을 늘어놓고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무장관이 남조선당국에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예정대로 진행되여야 한다고 압력을 가한 사실이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미국의 발광적인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고 조국통일운동의 발전에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북침합동군사연습은 그 어떤 리유로도 정당화될수 없다. 미국이 조선반도에 나타난 화해와 평화의 추이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것이 순조롭게 발전할것을 기대한다면 무모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나라의 평화가 위협당하는것을 절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 온 민족은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의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평화는 그 누가 선사하는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 조선반도평화수립에 제동을 걸고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외세와의 전쟁공조는 중지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외세와 함께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발광적으로 벌리는것은 스스로 전쟁의 재난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행위로 된다. 남조선에서 북침전쟁불장난소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전쟁의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것이며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은 항시적인 위협에 처하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수립을 방해하는 력사적, 현실적요인들을 하루빨리 제거하는것은 민족사의 요구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도수를 날로 높여나가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본사기자 심철영

불법선거개입사건 주모자처벌을 요구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2월 24일 천주교정의구현 부산교구사제단이 권력기관들의 선거개입행위를 규탄하는 시국미사를 가지였다.

종교인들이 불법선거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대책마련, 주모자처벌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방해하고 《종북》이라는 낡은 탄압수법으로 국민들을 위협하였으며 법원은 사건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빚어지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 또한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공범이라고 락인하였다.

정의와 량심이 무너지는 오늘의 현실앞에서 사회의 모든 량심적인 지식인, 종교인, 민중들이 련대하여 정의를 위해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불법선거개입의 주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것을 성명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위업의 필승의 기치—선군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특집하고 기념보도를 하였다.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는 2월 12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여러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홈페지는 《자주위업의 필승의 기치—선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군을 강한 민족자주정신을 지니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게 하는 위력한 무기,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게 하는 정의의 보검, 부강조국건설의 확고한 담보로 평하였다.

글은 선군의 정당성과 위력은 조선혁명의 실천과정에 뚜렷이 확증되였다고 하면서 미국에 당당히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고있는 조선의 현실을 통하여 세계는 선군이야말로 자주위업의 필승의 기치임을 더욱 절감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위인과 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은 조선의 국제친선전람관에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께 수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드린 선물들이 전시되여있다, 선물들은 진귀할뿐아니라 그 의미가 심오하여 참관자들모두가 경탄을 표시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기네국내방송은 2월 14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풍모에서 핵을 이루는 인민사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령도자이시였기에 세상에 없는 인덕정치를 펼치시였다.

그이의 령도사는 인민을 위하는 참다운 정치가의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준 나날이였다.

인민에 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사랑은 그 어디에나 뜨겁게 깃들어있다.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그이의 인민사랑의 풍모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신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서거후에도 여전히 자애로운 어버이로 불리우시며 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시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런 령도자를 조선인민이 칭송하며 따르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날 기네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에짚트신문 《알 마싸이야》 2월 14일부는 《비범한 령도예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각하의 령도예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강성국가건설에서 최상의 목표와 웅대한 설계도를 제시하고계신다.

무엇을 하나 건설하여도 최고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그이에 의하여 최근년간 조선에서는 세계적인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게 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경제강국건설뿐아니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도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가까운 몇해안에 조선을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려고 하신다.

그이께서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을 비약적으로 전진시키신다.

천만군민을 하나와 같이 움직여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일으켜나가시는 그이의 령도예술에 국제사회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나가신다.

그이의 발자취가 어리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천지개벽과도 같은 전변이 일어나고있는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비범한 령도예술을 지니신 김정은령도자께서 계시여 조선은 멀지 않아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것이다.

로씨야신문 《나쉬 돔—쏘치》 2월 13일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백두산밀영고향집사진과 함께 《흰눈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옹근 한면에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한생을 흰눈처럼 순결하게 사시였다.

그이께서는 늘 수수한 잠바옷을 입으시고 쪽잠으로 피로를 푸시면서 도처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공장들과 새 집들, 문화휴식터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시였다.

혁명선렬들과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많은 기념비와 동상을 세워주시면서도 자신의 동상 하나 세우지 못하게 하시였다.

또한 자신께 외국의 국가수반들과 정당 당수들, 저명한 인사들이 드린 선물들도 인민들모두가 볼수 있도록 하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만민을 포근하게 안아주시였다.

그이의 가장 큰 기쁨은 인민의 행복이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뙤약볕도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그이의 헌신에 떠받들려 조선에서 사회주의가 수호되고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이 펼쳐지게 되였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로 조선을 위협하던 시대가 영원히 끝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이 확고히 담보되게 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고귀한 생애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브이보르》 2월 14일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김정일동지는 언제나 인류의 심장속에》, 《가장 큰 공적》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실었다.

《웨쩨란》 제5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커가는 인민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들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그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모든것을 바치고계시는데 대하여,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으시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슬루쥬 오쩨체스뜨부》 2월 13일부는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백전백승의 향도적력량,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무적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군비경쟁을 조장시키는 장본인

얼마전 유럽의 한 신문은 미해군이 처음으로 레이자무기를 실전배비하려 한다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올해말에 군함에 첫 레이자포를 배비하고 앞으로 2년안으로 전자기포도 배비할 계획이라고 폭로하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앞으로 이러한 레이자무기들을 무인기, 고속정 등 많은 무장장비들에 도입하여 대상물들을 손쉽게 타격할것을 목적으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미전부터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지상에서 여러차례 이러한 시험이 감행되였다.

미해군해상무기체계사령부 계획국장은 앞으로 레이자무기가 해상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것이라고 떠벌이였다.

이것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사태이다.

미호전세력들은 해상전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여 세계를 저들의 손아귀에 기어이 틀어쥐려는 위험한 기도를 명백히 드러내보이고있다.

미국이 전쟁장비들의 살상력제고에 광분하고있는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비할바없는 절대적인 군사기술적차이로 상대방을 제압, 굴복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쟁이 없고 군비경쟁이 없는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에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인류공동의 지향이고 념원이다.

그런데 미국은 새로운 무기개발과 생산에 광분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인민들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공공연히 역행하고있다.

인류의 문명발전에 리용되여야 할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전쟁장비의 현대화, 살상력제고에 악용하는 미제야말로 만사람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야 할 전쟁미치광이이다.

지금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미국의 침략과 전쟁정책으로 하여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군비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으며 평화와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미국은 입으로는 《평화》와 《군축》에 대하여 곧잘 떠들고있다. 이것은 세계평화와 안전파괴의 장본인, 군비경쟁의 주범으로서의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술책에 불과하다.

군사적힘에 의거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전략적목표이며 야망이다.

세기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여도 미국의 이 야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있다.

현 미행정부가 《변화》와 《다무적협조 및 군축외교》를 운운하며 마치도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너스레를 떨지만 전쟁광신자들의 범죄적정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미제의 무모한 전쟁장비개발책동은 세계적인 군비경쟁과 군사적대결을 부채질하고 국제정세를 긴장시키는 반평화적행위이다. 국제무대에서는 미국의 군비증강책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제의 야심적인 대량살륙무기개발책동을 팔짱을 끼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리 없다.

미국이 쓴외보듯 하는 나라들이 미국의 레이자무기개발책동에 대처하여 무력현대화에 힘을 넣고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이 무력증강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세계는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속에 깊이 빠져들고 국제정세는 보다 복잡해지게 될것이다. 세계가 미국을 침략과 전쟁의 원흉, 평화의 암적존재로 저주, 규탄하는것은 응당하다.

미국은 그 어떤 감언리설로도 군비경쟁과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장본인,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주범으로서의 정체를 감출수 없다.

라 명 성

로 마 니 아 정 계 인 사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단죄

로마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바씰레 오를레아누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2월 2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조선반도정세가 또다시 엄중해지고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의 평화제안을 한사코 외면하고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철저히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도발로 된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싸우는 조선인민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의 선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오는것이 상책이라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로마니아사회주의당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며 조선반도에서 모든 침략무력을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은 그 어떤 핵 및 군사적위협도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치고 강한 억제력을 갖춘 조선인민에게 통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지난 조선전쟁에서 대참패를 당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에게 있다.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전진하는 조선인민에게는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로마니아사회주의당은 세계진보적인류가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과감히 떨쳐나설것을 호소한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 서방언론들이 사실을 외곡하지 말것을 요구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서방대중보도수단들이 보도를 공정하게 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서방의 일부 대중보도수단들이 우크라이나정세에 대해 보도하면서 마치도 이 나라 반대파는 정의와 질서를 요구하고있는데 정부가 그들을 힘으로 탄압하고있는듯이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곡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현상은 올림픽보도에서도 나타나고있다고 말하였다.

대중보도수단들은 자기의 정치적리익을 위해 사실을 외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경제를 회복시킬 결심 표명

가나대통령 죤 드라마니 마하마가 2월 25일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킬 결심을 표명하였다.

그는 지난 여러해동안 세계경제위기와 미국의 부당한 정책등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도 그 피해국들중 하나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경제적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인민들의 리익을 도모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분렬주의책동과 공습만행 규탄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 한난 아쉬라위가 2월 26일 이스라엘의 분렬주의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국회가 팔레스티나인들이 제출하는 직업요청서에 신앙에 대해 밝힐것을 요구하는 법을 채택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분렬주의책동으로, 차별적인 행위로 락인하였다.

그는 이 법이 팔레스티나인민을 민족성이 아니라 신앙에 따라 구별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폭로단죄하였다.

레바논애국력량조직인 히즈볼라흐가 2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군용기들이 국경지역에 위치한 히즈볼라흐기지에 공습을 가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엄중한 침해행위로, 불법무도한 침략행위로 락인하였다.

히즈볼라흐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나갈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발광적인 군사연습소동

미국과 일본이 공모결탁하여 침략전쟁에 뛰여들기 위한 군사연습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2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 디에고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미해병대와 일본륙상《자위대》가 그 무슨 외딴섬탈환을 위한 공동훈련을 감행하였다.

지금까지 9번째로 벌어진 이번 훈련에서는 륙상《자위대》원들이 미해병대와 함께 섬에 상륙한 후 내륙지역에로 전진하는 놀음이 벌어졌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에서 최근 반범죄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최근 광동성 동완시의 일부 오락봉사장들에서 매음, 기생놀이등의 범죄행위들이 폭로된것과 관련하여 공안부는 즉시 전국의 공안기관들이 범죄감행장소와 거점들을 엄격히 조사하고 타격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9일이래 전국 각지에서 1 300여건의 매음 및 기생놀이와 관련한 사건을 조사처리하고 매음행위를 강박, 유혹, 수용, 소개하거나 음탕한 공연을 조직한 사건을 181건 적발하였다. 이 과정에 73개의 범죄집단을 분쇄하고 501명의 혐의자들을 체포하였으며 2 410개의 범죄대상들에 대한 영업중지 및 정돈을 진행하였다.

공안부는 오락봉사장들에서 비법적으로 감행되는 매음과 기생놀이, 색정적인 공연, 집단도박, 마약사용행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처리하며 거기에 가담한자들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할데 대해 다시금 밝혔다.

꾸바에서

꾸바에서 최근 미국의 감옥들에 부당하게 감금되여있는 꾸바애국자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는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수도와 전국각지에서 진행된 행사들에 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꾸바애국자들을 당장 석방시킬것을 미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행사들에서는 꾸바애국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이 채택되였다.

나이제리아에서

나이제리아대통령 굳락크 에벨레 죠나탄이 2월 26일 한 연설에서 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현시기 안전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테로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안전기관들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란에서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최근 평화적핵활동을 멈추지 않을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이란핵계획의 평화적성격을 담보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핵시설들을 계속 가동시키는것이라고 하면서 나라의 핵시설들을 페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의 대외사업담당고문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가 2월 25일 정부는 그 어떤 핵시설도 절대로 페쇄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원심분리기들을 줄이거나 우라니움농축시설과 중수로를 페쇄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평화적핵계획을 계속 추진시켜나갈 정부의 립장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경제침체와 실업자 증대, 범죄 성행

—영국중앙통계국은 2월 21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1월에 소매업체들에서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감소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이 나라 에네르기공급업체인 브리티쉬가스회사에서는 지난해 리윤이 그 전해에 비해 6% 줄어들었다.

에스빠냐에서 지난해 국가채무가 9 615억 5 500만€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보다 8.7% 증대된것이라고 한다.

2월 17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또한 오스트랄리아의 많은 기업체들에서 경영형편이 악화되고있다. 2월 17일 한 경제단체가 전국의 중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에 참가한 1 289개의 기업체들이 지난해 4.4분기에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고 한다.

한편 일본에서 지난해 국내총생산이 그 전해보다 0.8% 감소되였다. 2월 24일 일본내각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또한 2월 20일 이 나라 재무성이 밝힌데 의하면 일본에서 올해 1월에 상품무역적자가 2조 7 900억￥에 달하였다한다.

—도이췰란드의 보험업체인 바머 쥐이케이회사가 2월 24일 리윤손실보상의 명목밑에 대대적인 일자리축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체에서 3 500명의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오스트랄리아의 항공운수업체인 칸타스회사에서도 최근 같은 명목으로 일자리를 대폭 줄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이 기업체에서는 5 000명의 근로자들이 해고당하게 된다.

또한 오스트랄리아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청년실업률이 증대되고있다.

2월 24일 이 나라 통계국은 올해 1월에 24살미만 청년실업률이 21%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2008년에 비해 12.1% 더 늘어난것이라 한다.

미국에서도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고있다.

2월 27일 미로동성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22일까지의 지난 1주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34만 8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1만 4 000명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한편 프랑스에서 올해 1월에 실업자수가 331만 6 000여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4%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2월 26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2월 26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였다.

이날 시의 한 살림집에서 일어난 총기류범죄로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미국 텍사스주의 달라스시에서 2월 16일 류혈적인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시의 한 야간유흥장에서 일어난 총기류범죄로 1명이 죽고 6명이 부상당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서북부지역에 있는 한 항구에서 2월 21일 마약밀수행위가 드러나 1.4t의 코카인이 압수되였다.

이보다 앞서 2월 19일 일본의 군마현에서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여 한 녀성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일본에서 마약밀수 및 밀매행위가 우심해지고있다.

2월 18일 나리다비행장세관당국은 지난해 이 비행장에서 269㎏의 각성제가 압수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1.6배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심각한 어린이사망문제

세계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목숨을 잃고있다.

2월 25일에 발표된 한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에 660만명의 5살미만 어린이들이 얼마든지 고칠수 있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상방조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다.

그중 한심한 위생조건 등으로 태여나자마자 죽은 어린이들의 수는 290만명에 달하였다.

또고의 린산염채굴장

군사적대결마당으로 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미국의 책동과 일본의 군국주의적책동으로 하나의 거대한 군사적대결마당으로 되여가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내놓고 이 지역에 막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있다. 이미 미핵잠수함들의 절반이상이 이 지역에 배비되였으며 《시어도 루즈벨트》호를 비롯한 핵항공모함들이 증강배비될것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미국은 《SM—3》요격미싸일을 탑재한 군함들의 대부분을 태평양에 주둔시킨데 이어 일본에 12대의 《F—22》스텔스전투기를 배비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얼마전에는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도 작전을 수행할수 있으며 아시아에서의 운용에 적합하다고 하는 최신형전투함 《인디펜던스》호를 공개하였다.

한편 미국내에서는 저들의 동맹국들을 규합하여 《아시아판 나토》를 시급히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울려나오고있다.

일본도 미국의 비호밑에 군사대국화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위대》무력강화에 온 힘을 쏟고있다. 대표적인 실례로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은 일본이 보다 큰 역할을 놀기를 바라고있다고 떠벌였으며 얼마전 일본집권자는 중국과의 전쟁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여 중국 등 국제사회의 경악을 자아냈다.

일본은 앞으로 5년안에 륙상《자위대》의 15개 사단과 려단중 4개를 기동형부대로 바꾸며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현재의 6척으로부터 8척으로 늘일것을 획책하고있다.

미국과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적움직임에 대응하여 로씨야와 중국이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고있다.

로씨야에서는 얼마전 태평양함대에 첫 무인비행대를 조직하였으며 공군 장거리항공대 전략폭격기들이 태평양과 오호쯔크해의 중립수역에 대한 순찰비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앞으로 몇년내로 잠수함과 상륙함 등 각종 최신형전투함선들이 생산되여 해군에 제공될것이라 한다.

중국은 첫 항공모함 《료녕》호를 지난해초 북해함대에 취역시킨데 이어 두번째 항공모함건조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100대이상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지상 및 해상목표에 대한 공격연습과 함재직승기에 의한 대잠수함훈련을 진행하였다.

한편 미국과 로씨야, 중국이 극초음속무기경쟁을 벌리고있다는 보도들이 전해지고있다.

국제사회계는 미국이 군사의 중심을 유럽으로부터 아시아로 옮긴 때로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 군비경쟁이 갈수록 격렬해지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국제적우려거리로 되고있는 식료품안전담보문제

식료품의 안전담보문제가 국제적인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다.

지난해 어느 한 인터네트싸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렸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20개 나라에서 위조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범죄망들이 숙청되였다. 결과 1억 3 300만US$에 달하는 2 400만점의 위조상품이 몰수되였다. 작전과정에 가짜알콜음료와 식료품, 품질검사도 거치지 않은 많은 불량상품들이 몰수되였다.》

이 자료는 불과 두달사이에 있은 사건들에 해당한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가짜식료품생산 및 류통을 방지하는것이 오늘 국제적으로 얼마나 심중한 문제로 나서고있는가 하는것을 현실로 실증해주고있다.

가짜식료품의 범람으로 하여 사람이 입는 피해는 그야말로 막대하다.

식료품의 소비자는 다름아닌 사람이다. 가짜식료품은 인체에 들어가 사람들을 시름시름 앓게 하며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로까지 몰아간다. 식료품안전담보는 곧 인간의 생명안전담보를 의미한다. 나아가서 이것은 사회적안정을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로 된다.

물론 이 문제가 오늘에야 비로소 제기된것은 아니다.

불량식료품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것은 오래전부터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경제의 발전과 함께 식료품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울려나왔다.

적지 않은 나라의 정부와 감독통제기관들은 이런 사건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도 취하고 일련의 진전도 이룩하였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안전담보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범죄자들이 리윤일면만을 추구하면서 식료품생산과 판매공간을 돈벌이수단으로 리용하고있는데 있다.

이로부터 세계적으로 식료품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안전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얼마전 유럽동맹이 보다 엄격한 규정초안을 작성하였다.

유럽동맹은 이를 통해 가짜유기식료품을 완전히 없앨것을 계획하고있다. 앞으로 유럽동맹의 인증을 받아야 할 유기식료품의 살충제잔류량은 반드시 어린이식료품에 들어있는 잔류량을 릉가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통제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63가지로 되여있는 유기식료품수입과 관련한 유럽동맹의 검사기준을 단일화하려 하고있다. 현재 검사가 농장을 위주로 하여 진행되고있으며 생산고리들과 판매단계에서는 적게 진행되거나 전혀 진행되지 않고있다.

로씨야는 가짜젖제품문제가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들중 하나로 제기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 나라의 전문가들이 추산한데 의하면 가짜젖제품 400만t이상이 현재 젖제품시장에 나와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가짜 및 저질식용기름, 고기가공제품, 조미료, 보건품, 주류와 음료 등 몰수된 여러가지 종류의 가짜식료품과 수백종의 비법첨가물질을 공포하고 현물진렬, 사진전시, 화상방영 등의 방식을 통해 식료품안전상식을 선전보급함으로써 인민들이 가짜를 가려보는 능력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새로운 식료품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관리방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규정을 내온것은 식료품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최근년간 국내에서 식료품안전성이 낮던 상황을 현저히 개선할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로 된다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케니아에서는 가짜식료품생산 및 판매방지를 위한 사업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기관을 내오고 해당한 법을 제정, 실시하여 위조행위에 대한 법적처벌, 주민들속에서의 대대적인 선전교양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이밖에도 많은 나라들이 수입을 식료품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보고 수입상품제한조치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이러한 노력들이 식료품안전성을 담보하는데서 큰 은을 내게 될것을 바라고있다.

그러나 식료품안전담보가 결코 순간에 해결될 일은 아니다.

외신들은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국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가 하는데 따라 식료품의 안전담보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고있다.

본사기자 박송영

전염병피해

그리스에서 최근 신형독감이 퍼져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보건당국은 이번 겨울철에 들어와 A(H1N1)형 돌림감기비루스에 의한 사망자수가 43명으로 늘어나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수는 60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자연재해

중국에서 지난해에 각종 자연재해로 많은 인적 및 물질적피해를 입었다. 전국적으로 사망자수는 1 851명, 행방불명자수는 433명에 달하였다.

또한 857만 8 000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였으며 3 134만 9 800㏊의 농경지가 못쓰게 되였다. 총피해자수는 3억 9 000만명에 이르렀다.

지진

미국의 알라스카주에서 2월 26일 리히터척도로 6.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애묵타섬으로부터 서쪽으로 138㎞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41035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